

# 방송·신문사 불자들이 힘 하나로 모은다

## 언론사 불자연합회 17일발족

### KBS·MBC·SBS 등 방송사 불자회 주축

### 연합법회 등 연대 강화... 회장에 정종철씨

국내 공중파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사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연합회를 결성한다. '언론사불자연합회(가칭)'는 17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홍우빌딩 10층에 위치한 여의도포교원에서 총회를 결한 창립법회를 갖는다.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사 불자들이 힘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회 결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창립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불교연구회와 서울방송(SBS) 범우회 대표자들은 지난 7월 전국직장기능단체 지도자수련회에서 방송사불자연합회 결성 의사를 타진한 이후 두차례의 만남과 각 회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언론사불자회 연합회 구성을 확정했다. 당초 방송사에 근무하는 불자들로 연합회를 결성할 예정이었으나, 경향신문사 불자회 등도 포함시키는 등 신문사 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언론사 불자들이 17일 '언론사불자회 연합회(가칭)'를 창립한다. 사진은 4월 27-28일 월정사에서 열린 불자방송·언론인 연수에서 발우공양을 하는 모습.

2년 임기의 초대회장에 KBS 불교연구회 정종철 회장을 내정했다. 또 MBC 불교연구회 황진욱 회장과 SBS 범우회 허원재 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창립총회에 2명 내외의 고문을 추대하기로

했다. 연합회 운영은 KBS 불교연구회가 맡게 되며, 예산 확보 방안과 고문단 선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창립에 앞서 한차례 더 모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사불자회연합회는 앞으로 미창립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 지원 활동, 연합법회 등 연대활동, 공동교리연구, 친목도모 등 활동을 펼친다. 신문사 중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향신문사 불자회와 연대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일보사의 가입도 추진한다. 미창립 언론사에 근무하는 불자들은 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해 불자회 결성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KBS 불교연구회 정종철 회장은 "서로 가까운 지역인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었던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 불자들이 연대에 공감하고 연합회를 결성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연합회 결성을 계기로 언론인 불자들이 개인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고와 경험의 폭을 넓혀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 우리불자회는요

###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

불교에 관심이 있고 뜻을 같이하는 직장 동료들이 모여 불자회를 만든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1주년 기념법회가 열렸던 2일, 지난해 창립 준비부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저로서는 행안하기 힘든 감동이 느껴졌어요.

공무원불자회 만큼은 '열악한 호남불교'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겠다는 굳은 서원으로 시작된 활동이었지만, 현실은 회원 확보부터 어렵기만 했었지요. 불교를 좋아하는 분들은 조용하고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성품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더

러한 결과라 기쁨은 더욱 큼니다. 회원들은 매일 두차례의 법회와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어요. 정기적인 활동이라서 보통 소홀하기 쉽지만,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적절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8월에는 해외불교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중국에 있는 영은사, 육불사 등 주요사찰을 순례했었지요.

성도절,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사, 기원법회 등 크고 작은 불교행사에 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지요. 우리 불자회는 다른 지역 불자회와



◇2일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1주년 기념법회.

### 열악한 호남불교 중흥전기 마련 서원

### 영호남 연합법회... 지역감정 해소 앞장

군요. 그렇다고 불자회 가입을 강요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홍보한 결과 창립 당시 60여명이었던 회원이 지금은 11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지역 공무원불자회도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 결성돼 400여 명의 동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1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풍경소리'라는 회보를 만들어 시·군 공무원 불자에게 나누어 주고, 전남도 홈페이지에 있는 불자회 코너를 매주 업데이트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들이 노

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영 호남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대구시청 및 7개구청 공무원 불자회와 백양사에서 연합법회를 열기도 했었지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왕래를 통해 영 호남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각오입니다.

불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개개인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 공부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표현 같지만, 열악한 호남불교가 중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불자회가 앞장 서 나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김재홍 총무(지석기반선교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9월 27-28일 양산 통도사에서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 우리 모임에선

#### 중석초경 석불회 운문사 순례

대한중석초경 석불회(회장 김갑수)는 13일 청도 운문사에서 순례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일진스님으로부터 '연기법과 불교사상'에 대해 법문을 듣는다.

#### 약사보리회 티베트에 의약품 지원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경숙)는 티베트 망명정부에 상비의약품을 지원했다. 10월 2일 항공편으로 발송된 의약품은 위장약·진통제·영양제 등 1백여 만 상당이다. 이번 의약품 지원은 불자약사보리회와 인연이 있는 해국스님(제주 남극선원장)이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를 방문했을 때 티베트측이 요청해 응에 따라 이뤄졌다.

#### 경인교사불자회 5주년 법회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는 9월 2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교사와 청소년 포교에 매진하기로 했다. 지역교사불자회와의 정보·신행자료 등 원활한 포교를 위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장애학생을 위한 봉사활동, 군부대 위문, 일반교사 대상 불교 일반연수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공불련 창립 2돌... 내실·결속 다져

### 노옥섭 회장 재선출 재정 안정화·여성회원 확대 추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창립 2주년을 맞아 9월 28-29일 양산 통도사에서 정기총회 및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공무원불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법회에는 1백여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불자회에서 8백여명이 동참했다.

공불련은 소속 지회에 분담금을 책정, 재정 운용을 안정화 시켜나가는 한편 여성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회장과 사무국 임원에

여성회원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공불련은 정기총회에서 제 2대 회장에 노옥섭(53·감사원 감사위원) 현 회장을 재선출했다.

노옥섭 회장은 "47개 기관으로 출발했던 공불련이 180여 단체, 7천여 회원을 거느리는 연합단체로 성장해, 이제는 내실과 결속을 강화할 시점"이라며 "지역불자회간 연합활동을 장려하고, 회원들의 기본교육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산= 박봉영 기자

### 운불련 안양시 체육대회 22개지역서 1천명 참가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는 29일 안양 자유공원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축구,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대구, 부산, 대전 등 22개 지역회에서 1천여 회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김주본 회장은 "회원들간 정을 돈독히 하고 운불련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 단체장 동정

#### 12-13일 월악산 산행

이목태 부산청년불자연합회장은 12-13일 제천 월악산을 찾아 산행에 나선다. 12일 오후 11시 부산불교회관 앞에서 출발한다.



#### 100만km 무사고 주행

김태웅 철도청 대전기관차승무사부소 법우회장은 2일 100만km 무사고 주행 기록을 달성했다.

#### 가을의료봉사 준비점검

김주호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9일 국립서울정신병원 간호과장실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가을의료봉사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 불교의식강좌 열어

정진호 우리은행 불자회장은 10일 본사 소강당에서 법현스님(서울 천중사 부주지)을 초청해 '불교의식강좌'를 연다.

###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nia.com

-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 불자들을 위한 바른 수행의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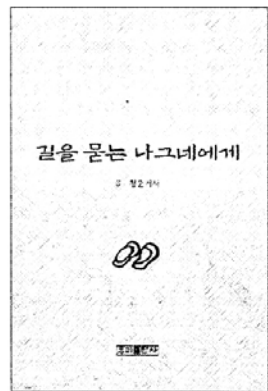
#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 이 책의 특징

진심(眞心)에 대해서는 그 참뜻을 추상적(抽象的)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신행(信行)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밖에서 찾고 있는 기복적 신앙(信仰)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믿음의 대상이 다양한 우리 불교의 현실, 즉 토속신앙에서 유래된 지신 등 여러 신들과 불보살들의 명호 및 부처님들의 다른 이름 등에서 근본적으로는 진여인 자성불 일불(一佛)로 귀결되며 이 일불만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모든 공덕의 으뜸은 자기 성품을 깨치기 위한 자성공양이며, 자기 자성불을 믿고 이를 보기 위한 수행만이 바른 신행이며, 이것 외에는 모두 외도(外道)라 하여 보시의 공덕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였다.



글·청운거사 / 신국판 / 288쪽  
값 10,000원

무엇이 정법(正法)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修行)인가!

부처님의 설법(說法)과 역대 조사(祖師), 근대 선지식(善知識)께서 설하신 법문(法文) 중에서 언제나 가슴에 와 닿는 주옥같은 말씀을 모아 우리 불자들이 다만 한 계승(偈頌)한 구절이라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엮었다.